

지역업체 우수제품 판로 확보·신기술 홍보에 함박웃음

/ 이모저모 /

◇이번 강원엑스포페어에는 40여개 업체가 부스를 만들어 참가. 참여한 업체들은 회사의 제품 및 신기술이 매일 강원일보 지면을 통해 홍보되며 실제 계약 체결과 매출 증기를 기대. 지역 주민들도 강원일보를 열독한 후 박람회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스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찾아 판매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경쟁력 있는 도내 업체들의 위상을 실감.

도 18개 시·군 홍보효과 특출

◇강원엑스포페어에는 강원도를 비롯해 춘천시 등 도내 18개 시·군

이 홍보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인기. 2018동계올림픽 빙상·설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시와 평창군에서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컬링 체험 행사 등 퍼포먼스도 진행. 영월군·양구군은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유도.

지역상권 매출 2배 이상 증중

◇박람회에는 지자체와 업체 관계자, 단체 관광객, 지역 주민 등이 몰려 춘천 호반체육관 인근 지역 상권 매출 증가를 견인. 부스 관계자들은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 지역 상인들도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함박웃음.



◇강원엑스포페어2016 주특·건설·건축박람회(가)가 지난 26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행사장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도내 40여개 업체를 포함해 70여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29일까지 열린다.

기념품 가장 10분만에 소진

◇이번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강원엑스포페어 조직위 사무국이 마련한 기념품이 개장 10분 만에 소진. 2014년 차량용 구급함, 지난해 클래식락 세트에 이어 올해는 고급 호텔용 타월 세트가 준비돼 오전 10시 오픈에 오픈시간에 맞춰 몰려든 방문객들에게 선물로 제공.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

정선 해비즌 농산물 인기만점

◇정선 해비즌협동조합이 마련한 농산물을 부스가 관람객들에게 인기.

조합은 정선군청이 지원한 부스에 곤드레국, 곤드레차, 겨우살이차, 황기차 등의 특산품을 전시해 이목을 집중. 김승수 조합장은 "해비즌은 정선의 햇살이 빛어낸 식품이라는 뜻으로 강원엑스포페어를 통해 정선의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웃음.

네일아트·캐리커처 재미 선사

◇이번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눈길. 네일아트 코너에는 여성은 물론 일부 남성 관람객도 참여. 캐리커처 코너에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큰 호응. 오픈에 문화마당에는 화천현역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목제가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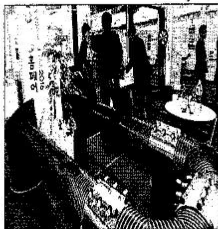
/ 참가업체 소개 /

기술력 무기로 조달우수제품 인증업체 선정

(주)월드케미칼

(주)월드케미칼(대표:박재희)은 춘천에 본사가 있는 PE하수관을 제조 중인 업체다. 도 고용우수기업체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KS인증 획득, 태백지역 제조업체 최초 조달우수제품인증 등을 받았으며 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도내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제조업체 최초로 국내 조달시장에 D1500 규격의 하수관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기반 확대 및



지역 내 부자재를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 벽체가 모래시계 빔(Beam) 구조로 외압 강도를 높인 '구조형 폴리에틸렌 이중벽 하수관 중공압력관'을 꼽을 수 있다.

디자인·안정성 우수 개방형 가드레일 눈길

(주)동명테크피아

원주의 (주)동명테크피아(대표:김동호)는 건설산업 분야의 신소재 및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인 국가시설에 서비스하는 벤처기업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주요 시설물인 도로나 교량 등의 유지관리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건설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신소재 및 신공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 국가기술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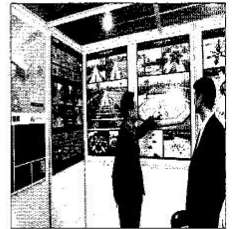


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력제품인 개방형 가드레일은 레일이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돼 있어 개방감 및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고 견고한 스틸재질을 사용해 강성이 우수하다.

녹지·수질개선 특화된 보도블록 개발·생산

세진콘크리트공업(주)

세진콘크리트공업(주)(대표:이수권)은 1988년 원주에서 창립했다. 이후 1998년 KS표준 인증을 시작으로 2005년 ISO 인증, 2007년 이노비즈, 2009년 벤처기업에 선정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제품으로는 보강토용벽블록,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록, 식생호안블록, 투수인터로킹 블록, 인조화강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등이다.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록은 조립



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블록이다. 식생호안블록은 토사 침식 방지와 녹지 조성 및 토양 개량,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꾸밀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도로변 낙석·토사방지 연구·기술개발 앞장

(주)엠케이지오이앤씨

원주의 (주)엠케이지오이앤씨(대표:나종호)는 국내 도로사면보호공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안전으로 귀결된다는 목표표 품질시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회사의 제품인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낙석방지장 기술'은 방재기술을 제71호로 지정돼 있는 공법으로 육각형태의 낙석



방지타입이다. 시각적 안정과 구조적 안정성을 겸비한 사면보호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리형 낙석방지책'은 와이어로프의 절광을 경간별로 분리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도로교통안전 30년 노하우 특허·경험 풍부

도일산업(주)

원주의 도일산업(주)(대표:강창호, 박석재)은 토공사, 금속구조물 창조공사 등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다. 주요 사업으로 절, 성토부 공법, 친환경 녹색 공법,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제조 및 설치하고 있다. 30년간 이어온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시공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해외사업으로 동남아(말레이시아) 및 일본 등에 도로안



전시설공사 및 제품 수출을 하고 있는 우수건설업체다. 제품인 정형옹벽은 콘크리트 블록을 현장에서 조적·조립한 후 내부 공간을 채움들로 중진, 일체화해 토압에 저항하는 옹벽 공법이다.

친환경 토목자재 전문 첨단설비·기술 갖춰

(주)장성산업

원주의 (주)장성산업(대표:김천수)은 친환경 토목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도로, 하천, 택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국가사업 전반에 필요한 토목자재를 만들며 최첨단 설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조공법도 개발 중이다. 토목 분야의 제품으로는 보강토블록, 식생옹벽블록, 식생축조블록 등이 있으며 환경 분야에는 하천호안블록(육각형태, 환경생태, 식생판



블록, 새굴방지블록), 황토생태블록, 식생매트 등이 있다. 장성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건설수요 창출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강원에코홈페어 심포지엄

김영덕 건설연 연구위원 발표

“철도 등 SOC 사업 조속 추진”

“강소건설기업 육성 지원” 주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2016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지역에서 건설업 생산액이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크다”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설투자는 평창올림픽 특수로 인해 2011년 이후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후 건설투자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원지역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9.9%에서 지난해 7.5%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강원에코홈페어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 개막 이튿날인 27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지역은 남·북, 동·서 간 단절구간이 많아 도로 수요는 여전히 발생한다”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원주강릉선 복선전철화, 동해선 전철화, 원주춘천선 등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SOC 예산은 도로 철도 항공항만 산업단지 수자원 물류 지역

및 도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투자가 필요하다”며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용이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신수요를 창출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데 있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자체에서는 시장 창출과 함께 지역 내 강소건설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기술개발 장려를 유도하는 제도의 정비와 대·중소,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기자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건설
협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 회
의에 참석, 주요현
안을 논의한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내달 출범

3일 창립총회 개최 공식 활동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내달 공식 출범한다. 강원도는 도내 경제단체를 통합해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경연)가 내달 3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지난 11일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의결된 정관과 임원 구성, 사업계획안을 최종 결정한다. 강경연은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두고 경제 시책 발굴 등 경제현안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발기인대회에서는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회장이 임시회장으로 추대됐다. 안은복 rio@kado.net



“내년 국내 건설수주 위축… 해외 반등 가능성”

한국건설경영협, 올 수주액 142兆… 내년 132兆로 하락 전망

올해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142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2017년 국내 건설 수주는 132조3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택경기 과잉 우려와 내년 SOC 예산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승민 NH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142조2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국내 수주규모가 158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점, 그리고 2011~2015년 평균 국내 건설 수주액이 113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 시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민간 건축수주가 크게 증가한 덕분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2016년 신규 주택 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민간 주택건설 부분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해외건설 수주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지난해에 비해

민간건축 부진·SOC예산 축소 영향
국제유가 상승에 발주물량 증가 기대

무려 29.3% 감소한 326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해외발주 물량 증가로 올해보다 39.6% 증가한 455억달러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꾸준히 배럴당 50달러선을 지켜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예상돼 해외발주처들이 내년을 발주할 수 있는 적정 시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 건설경영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수주 물량은 부동산시장, SOC, 해외건설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하향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락 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건설의 경우 정부의 노력으로 대형 해외개발사업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수주액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형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에 내년이 ‘준비’와 ‘점검’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신성장동력 및 해외건설 투자방향 등 거시적인 전략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개될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내부유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구조조정 마무리와 조직문화 재구축 및 사업 점검 △기업체질개선을 통한 잠재력 총진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했다.

한상준기자newspla@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강원건단련, 에코홈페어-주택·건설·건축박람회 개최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26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강원 에코홈페어 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를 개막(사진)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도와 춘천시 등 17개 시·군이 공동 참여, 29일까지 열린다.

업체 간 교류는 물론 판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인들

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과 시장 진출의 장이 될 것으로 강원건단련은 기대했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도내 건설관련 기업들이 생산하는 토목·건축자재·인테리어 기자재, 건설공구 및 장비 등 제품의 전시 및 판매, 제조업체와 수요자 간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강원지역 건설취업자 지속 증가

강원지역 건설 호조에 힘입어 이 지역 건설 취업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27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강원도의 건설취업자 수는 6만2명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취업자 수가 1000명 늘었다. 강원지역 건설취업자 수는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도내 건설 취업자 수는 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명이 늘었다. 2분기에는 6만명을 기록, 지난해 2분기보다 4000명 증가했다.

이는 3분기 도내 전체 취업자 수가 7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000명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9월 기준 도내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도내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도내 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건설 취업자 수도 아울러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건설 수주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동북지방통계청 집계

올 3분기 기준 6만2명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
상가 등 민간 건축 활발 영향

연도	분기	전체	건설업
2015년	1분기	667	47
	2분기	751	56
	3분기	769	59
2016년	1분기	738	58
	2분기	684	48
	3분기	766	60

자료: 동북지방통계청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건설 수주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회원사의 건설수주액은 853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정도 급증했다.

도내 건설수주가 증가한 것은 최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입찰이 이어졌고, 올해는 민간건축 시장이 살아나면서 민간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건축 부문 수주는 지난해 이후 4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도내 수주액이 늘어난 만큼 건설업 취업자 수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가 등 민간 건축이 살아났다”면서 “도내 레미콘 업체도 호황”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